

한의학 교육 분야에서의 原典學의 범위 및 학습 목적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학부

이명렬 · 임교민 · 이병욱 · 백진웅*

The scope and learning objective of Medical classics in the field of the education of Korean Medicine

Lee, Myeong-Ryeol · Lim, Gyo-Min · Lee, Byung-Wook · Baek, Jin-Ung*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cope and learning objective of Medical classics in the field of the education of Korean Medicine.

Method : This study was analyzed and figured out list of classes which was taken by department of medical classics in eleven College of Korean Medicine and one school of Korean Medicine.

Results & Conclusions :

1. Now, 14 subjects out of 16 subjects which were taken by whole department of medical classics in Korea can be a proper area of education of medical classics. Now, *Hwangjenaekyung* and *Nangyeong* are the only aim of the lessons at the medical classics. Therefore, we present to modify the aims inclusively.
2. The subject of the class have to change as follows. 'Wonjeon' changes into 'Hwangjenaekyung', 'Medical Chinese character' changes into 'Korean medical chinese character', 'medical informatics' changes into 'korean medical informatics'.
3. As we consider the condition that 'Nangyeong' is educating in just four departments of medical classics, we have to discuss about the stature of *Nangyeong* and to extend education of *Nangyeong*.
4. In the department of medical classics, we can improve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reading skills by educating the class of 'Sanghanron' and 'Donguibogam'.
5. This study is actively involved in trying to include 'Korean Medical Informatics' and 'Korean medical terminology' in the education field of the medical classics.

Key Words : Medical classics(原典學), Learning objective of medical classics(원전학 학습 목적), Scope of medical classics(원전학의 범위), Education of medical classics(원전 교육)

* 교신저자 : 백진웅.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
의학부
Tel : 051-510-8452, E-mail : mukjagan@naver.com

접수일(2012년 5월 1일), 수정일(2012년 5월 8일),
게재확정일(2012년 5월 17일)

I. 序 論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발행한 2006년 개정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에서는 原典學¹⁾의 학습 목적을 “한의학의 최고 원리서인 『內經』과 『難經』을 통해 生理, 病理, 疾病, 診斷, 治療, 運氣, 養生 등에 관한 내용을 原書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韓醫學의 이론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韓醫學 관련 漢文 독해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²⁾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문장을 주어진 그대로 풀이하면, 韓醫學 이론 체계를 확립하고 또 韓醫學 관련 漢文 독해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原典學에서 대상으로 하는 原典은 『內經』과 『難經』으로 국한된다. 즉 原典學 분야에서는 『內經』과 『難經』만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原典에는 『黃帝內經』, 『傷寒論』 및 이후 明清代까지 한국과 중국의 주요 韓醫學 저서들이 포함되는데, 주로 『黃帝內經』과 『傷寒論』이 중시되고 있다.”³⁾라거나 “原典學은 韓醫學 이론의 바탕이 되는 기본 古典으로 그 범주가 『黃帝內經』, 『難經』, 『傷寒論』, 『金匱要略』,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 등의 광범위한 原典을 포괄한다.”⁴⁾라는 등의 原典學의 학문 분야 범위에 관한 일반적 인식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또 1987년 창간호부터 2010년 3월까지 간행된 학회지에 수록된 총 727편의 논문을

原典, 醫史學, 醫哲學, 生理 및 病理, 鍼灸 및 經穴, 本草 및 方劑, 診斷, 四象, 情報, 養生, 氣功, 臨床, 其他의 분야로 나누어 분류 및 분석함으로써 연구 분야에서의 原典學 범위의 폭넓음을 보여준 금’ 등의 연구 결과와도 큰 차이가 있다⁵⁾. 이러한 原典學의 학문 분야에 관한 일반적 인식 및 연구 분야에 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볼 때, 2006년 개정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에 수록된 原典學 학습목적은 原典學의 교육 분야 범위를 심하게 위축시키거나 혹은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06년 개정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에 수록된 原典이란 “좁은 의미에서의 原典으로 대표적 原典인 『黃帝內經』과 『難經』만을 의미한다”라는 단서만 추가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정리 방식은 결과적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原典學의 범위가 『黃帝內經』과 『難經』으로 제한되어 고착화되는데 일조하게 된다. 학습 목적에도 “韓醫學 古典인 仲景『傷寒論』”⁶⁾이라고 분명히 명시된 『傷寒論』 교육을 原典學 교실이 아닌 다른 기초 및 임상 교실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실제 교육 분야에서의 原典學의 교육 범위가 위축되어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⁷⁾. 따라서 현재의 실제 교육 현황을 근거로 原典學의 교육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原典學의 학습 목적을 재검토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原典學 교육 분야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原典學 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黃帝內經을 중심으로”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原典學의 대상을 광범위한 古典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제 한의과대학에서의 原典學 교육이 『黃帝內經』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사실상 『黃帝內經』 교육 현황 분석만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⁸⁾. 하지만 原典學의 교육

1)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에는 ‘原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에 수록된 11 개 기초 학문 분야의 명칭 중 ‘學’字로 끝나지 않는 학문 분야는 ‘原典’과 ‘傷寒論’ 뿐이다. ‘傷寒論’은 본 논문의 주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原典’만 살펴보면, 이렇게 학문 분야를 ‘原典’이라고 命名하면 ‘原典’에 ‘原典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가리키는 의미와 ‘原典이라는 학문의 대상이 되는 문헌 자료로서의 原典’을 가리키는 의미가 겹치게 된다. 따라서 엄밀한 구분을 위해 학문 분야를 가리킬 때는 ‘原典學’이라고 命名하고, 그 대상인 문헌 자료를 가리킬 때는 ‘原典’이라고 命名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原典學’이라고 표기하였다.

2) (財)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 서울. 유천문화사. 2007. p.9.

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編著. 東洋醫學大辭典 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92.

4) 김도훈. 韓國의 原典學 研究 動向.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4). p.102.

5) 금경수, 송지청, 엄동명. 韓國의 原典學 研究 動向.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2). p.101.

6) (財)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 서울. 유천문화사. 2007. p.97.

7)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 중에서 ‘傷寒論’ 과목 교육을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하는 학교는 동신대학교와 상지대학교의 단 두 곳뿐이다.

8) 김도훈. 韓國의 原典學 研究 動向.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4). p.102.

분야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11 개 한의과대학 및 1 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하는 전체 교육 과목 현황을 검토 및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선 이를 근거로 현재 原典學의 학습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일정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연구방법

- 1) 교육 분야에서의 原典學의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原典學 교실이 담당하는 교과 과목을 검토해야 한다. 原典學 교실이 담당하는 교육 과목을 우선적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原典學의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의 분석을 통해 담당 교과목을 1 차 수집한 후 각 학교 原典學 교실 소속 교원과의 e-mail 교환 혹은 전화통화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내용을 수정 및 최종 확정하였다⁹⁾10).
- 2) 현재 국내 11 개 한의과대학과 1 개 한의학전문대학원 중 7 개의 한의과대학이 原典學과 醫史學을 합친 原典醫史學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4 개의 한의과대학이 原典學 교실과 醫史學 교실을 분리하여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일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原典學과 醫史學을 포함한 인문사회의학부를 운영하고 있다¹¹⁾.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한의학 교육기관의 현실을 반영한다면 原典學 교실의 담당 교과목을 분석할 수 있는 학교는 4 개뿐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8 개나 되는 韓醫學 교육 기관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原典學의 교육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에 原典學과 醫史學이 합쳐진 학교의 경우에는 原典學 교실과 醫史學 교실이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한 후, 실제로는 原典醫史學 교실에서 담당하는 과목 중 비교적 명백하게 醫史學 분야의 과목이라 판단할 수 있는 醫史學(혹은 醫學史)과 各家學說만 醫史學 교실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과목 전체는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하는 과목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3) 이렇게 수집된 原典學 교실 담당 교과목을 주로 그 과목의 내용, 그 과목을 교육하는 교육 기관의 수,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4)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 難經은 교과목명으로 쓰일 때가 있고 또 책 제목으로 쓰일 때가 있다. 교과목명으로 쓰일 때는 ‘難經’이라고 표기했고, 책 제목으로 쓰일 때는 『難經』으로 표기했다. 즉 교과목 명은 모두 ‘ ’ 표시로 구분하였고, 책 제목은 『 』 표시로 구분하였다.
- 5)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정식 과목명이 ‘原典 1’ ‘原典 2’라고 표현되는 과목을 편의상 ‘原典(黃帝內經)’이라고 표기했다. 숫자는 교과목 내용과 상관없기 때문에 삭제했고, 괄호 안에 ‘黃帝內經’을 추가한 이유는 구체적 교육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다른 교과목도 모두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교과목명을 표기하였다.

9)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 5집(2009년-2010년). 2011년.

10) 11 개 한의과대학의 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육보다는 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대학원 교과목은 살펴보지 않았다. 다만 한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한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한의과대학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11) 경원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의 7 개 대학교는 原典醫史學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원광대학교는 原典學 교실과 醫史學 교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原典學과 醫史學을 포함하고 있는 인문사회의학부를 운영하고 있다.

2. 原典學 교실의 담당 교과목

1) 原典學 교실의 담당 교과목 현황¹²⁾¹³⁾

(1) 경원대학교 原典學 교실의 담당 교과목¹⁴⁾
경원대학교 原典學 교실에서는 ‘韓醫學漢文’, ‘原典(黃帝內經)’을 담당한다¹⁵⁾.

(2) 경희대학교 原典學 교실의 담당 과목
경희대학교 原典 教실에서는 ‘醫學漢文’, ‘漢文(孟子)’, ‘原典(黃帝內經)’, ‘溫病學’, ‘難經’, ‘金匱要略’을 담당한다¹⁶⁾.

(3) 대구한의대학교 原典學 교실의 담당 과목
대구한의대학교 原典醫史學 教실에서는 ‘四書三經’, ‘醫學漢文’, ‘運氣學’¹⁷⁾, ‘類經’, ‘原典(黃帝內經)’, ‘難經’, ‘東醫寶鑑’을 담당한다¹⁸⁾.

(4) 대전대학교 原典學 교실의 담당 과목
대전대학교의 原典學 教실에서는 ‘一般漢文’, ‘醫學漢文’, ‘醫哲學’, ‘醫易學’, ‘東醫寶鑑講讀’, ‘韓醫學概論’, ‘原典(黃帝內經)’을 담당한다¹⁹⁾.

(5) 동국대학교 原典學 교실의 교육 과목
동국대학교 原典醫史學 教실에서는 ‘醫古文’, ‘原典 및 세미나(黃帝內經)’, ‘韓醫學漢文’을 담당한다²⁰⁾.

(6) 동신대학교 原典學 교실의 교육 과목
동국대학교 原典醫史學 教실에서는 ‘一般漢文(孟子)’, ‘醫學漢文’, ‘原典學(黃帝內經)’, ‘難經’, ‘傷寒論’을 담당한다²¹⁾.

(7) 동의대학교 原典學 교실의 교육 과목
동의대학교 原典學 教실에서는 實用漢字(大學), 經典講讀(孟子), 原典(黃帝內經), 醫學漢文, 醫易學을 담당한다²²⁾.

(8) 상지대학교 原典學 교실의 교육 과목
상지대학교 原典醫史學 教실에서는 ‘漢文(論語, 醫學漢文)’, ‘原典(黃帝內經)’, ‘傷寒論’, ‘溫病學’, ‘運氣學’을 담당한다²³⁾.

(9) 세명대학교 原典學 교실의 교육 과목
세명대학교 原典醫史學 教실에서는 ‘漢文’, ‘醫學漢文’, ‘醫哲學 및 의료윤리’, ‘原典(黃帝內經)’을 담당한다²⁴⁾.

(10) 우석대학교 原典學 교실의 교육 과목
우석대학교 原典醫史學 教실에서는 ‘醫學漢文’, ‘經書講讀(論語)’, ‘原典(黃帝內經)’, ‘醫書講讀(醫學心悟)’을 담당한다²⁵⁾.

12) 본 연구의 목적이 原典學의 교육 분야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담당교과목이 선택과목인지 필수과목인지는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13) 예를 들어, 동신대학교에서는 ‘동양철학’ 과목을 原典醫史學 教실에서 책임지며 시간 강사에게 강의를 맡긴다. 이 경우처럼 原典學 분야가 약간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면서 동시에 강의자가 原典醫史學 教실 소속원이 아니라 단지 관리의 책임만 맡는 경우에는 原典學 教실 담당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14) 경원대학교는 최근 “가천대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에 경원대학교로 표기되어 있어 편의상 이를 따랐다.
15)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8-9.
16)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28-29.
17) 黃帝內經 강의 내용 중에 運氣學이 강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즉 여기서의 運氣學은 별도로 과목이 개설된 경우만을 말한다.
18)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56-57.
19)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80-81.

20)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104-105.
21)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126-127.
22)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151-153.
23)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174-175.
24)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195-197.
25)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220-221.

(11) 원광대학교 原典學 교실의 교육 과목

원광대학교 原典學 교실에서는 ‘經書講讀(大學, 孟子)’, ‘韓醫學用語’, ‘韓醫學漢文’, ‘原典學(黃帝內經)’, ‘의료정보학’, ‘運氣論’을 담당한다²⁶⁾.

(12)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의학부의 교육 과목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여러 전공과목 교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한의과대학의 原典學史學 교실이 포함되어 있는 인문사회의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 과목은 韓醫學入門, 人體의 臟象과 養生, 인체 질환의 인식과 해석, 經絡經穴學, 현대사회와 한의학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하지만 그 내용을 다른 한의과대학의 교과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醫學漢文’, ‘黃帝內經’, ‘難經’, ‘의료정보학’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²⁷⁾.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 과 같다.

표 1. 原典學 교실의 담당 교과목

대학	담당 교과목
경원대학교	韓醫學漢文, 原典(黃帝內經)
경희대학교	醫學漢文, 漢文(孟子), 原典(黃帝內經), 溫病學, 難經, 金匱要略
대구 한의대학교	四書三經, 醫學漢文, 運氣學, 類經, 原典(黃帝內經), 難經, 東醫寶鑑
대전대학교	一般漢文, 醫學漢文, 醫哲學, 醫易學, 東醫寶鑑講讀, 韓醫學概論, 原典(黃帝內經)
동국대학교	醫古文, 原典 및 세미나(黃帝內經), 韓醫學漢文
동신대학교	一般漢文(孟子), 醫學漢文, 原典學(黃帝內經), 難經, 傷寒論
동의대학교	實用漢字(大學), 經典講讀(孟子), 原典(黃帝內經), 醫學漢文, 醫易學
상지대학교	漢文(論語, 醫學漢文) 原典(黃帝內經), 傷寒論, 溫病學, 運氣學
세명대학교	漢文, 醫學漢文, 醫哲學 및 의료윤리, 原典(黃帝內經)
우석대학교	醫學漢文, 經書講讀(論語), 原典(黃帝內經), 醫書講讀(醫學心悟)
원광대학교	經書講讀(大學, 孟子), 韓醫學用語, 韓醫學漢文, 原典學(黃帝內經), 의료정보학, 運氣論
부산대학교	醫學漢文, 黃帝內經, 難經, 의료정보학

26)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242-243.

27)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264-265.

2) 原典學 교실의 담당 교과목 현황 고찰

앞에서 살펴본 11 개 한의과대학 및 1 개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을 교육 기관의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原典(『黃帝內經』)’과 ‘醫學漢文’ 과목은 12 개 교육 기관의 모든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하고 있다²⁸⁾.

그 다음으로는 ‘漢文’, ‘一般漢文’, ‘經典講讀’, 혹은 ‘四書三經’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동양의 古典 강독 과목을 부산대학교를 제외한 경희대학교, 대구 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의대학교, 상지대학교,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의 11 개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하고 있다²⁹⁾³⁰⁾.

그 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신대학교, 부산대학교의 4 개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難經’ 과목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한의대학교, 상지대학교, 원광대학교의 3 개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運氣學’ 과목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한의대학교와 대전대학교의 2 개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東醫寶鑑’ 과목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 경희대학교와 상지대학교의 2 개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溫病學’ 과목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동신대학교와 상지대학교의 2 개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傷寒論’ 과목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대전대학교와 세명대학교의 2 개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醫哲學’ 과목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원광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2 개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의료정보학’ 과목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동의대학교와 대전대학교의 2 개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醫易學’ 과목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8) 예를 들어 ‘醫學漢文’, ‘韓醫學漢文’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과목명은 조금 달라도 실제 교육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간주하였다.

29) 論語, 大學, 孟子, 小學 등 학교마다 강의하는 구체적 서적은 조금씩 달랐지만 漢文 및 동양철학 사상 교육이라는 교육 목표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교과목으로 간주하였다.

30) 경원대학교의 경우에는 동양 古典 강독이 ‘韓醫學漢文’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1 개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목으로는 경희대학교의 ‘金匱要略’ 과목, 대구한의대학교의 ‘類經’ 과목, 대전대학교의 ‘韓醫學概論’ 과목, 우석대학교의 ‘醫書講讀(醫學心悟)’ 과목, 원광대학교의 ‘韓醫學用語’ 과목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原典學 교실 담당 교과목별 교육기관의 수

담당 교과목	교육기관의 수
原典(黃帝內經), 醫學漢文	12
一般漢文 (論語, 孟子, 小學 등의 동양 古典)	11
難經	4
運氣學	3
傷寒論, 東醫寶鑑, 溫病學, 醫哲學, 醫易學, 의료정보학	2
金匱要略, 類經, 醫書講讀(醫學心悟), 韓醫學用語, 韓醫學概論	1

표 2를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原典學 교실의 수에 따라 순서대로 각 과목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原典(黃帝內經)’, ‘醫學漢文’

‘原典(黃帝內經)’과 ‘醫學漢文’은 12 개의 한의학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 모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原典(黃帝內經)’과 ‘醫學漢文’은 原典學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목적에서 밝힌 “한의학의 이론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한의학 관련 漢文 독해 능력을 배양한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³¹⁾.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교과목의 명칭이다. 먼저 ‘醫學漢文’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에 따라서 ‘醫學漢文’ 혹은 ‘韓醫學漢文’ 혹은 ‘醫古文’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학과 관련된 漢文 原文 교육’이라는 기본 목적을 생각할 때 ‘韓醫學漢文’으로 변경하여 통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비록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原文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韓醫學漢文’으로의 과목명 통일을 통해 해당 교과목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의학 교육 기관에서의 原典學 교육의 통일성과 표준성도 드러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교과목 명칭 변경 및 통일의 의의는 다른 과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原典(黃帝內經)’은 ‘黃帝內經’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우선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정식 교과목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原典 I’과 같은 명칭은 『黃帝內經』을 교육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 즉 용어의 동일성 때문에 광범위한 한의학 관련 古典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 의미의 原典과 『黃帝內經』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原典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原典을 『黃帝內經』과 『難經』으로 규정한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의 내용과는 달리 ‘原典’ 과목에 『難經』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難經’이라는 별도의 개설 과목에서 『難經』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³²⁾, 『黃帝內經』만을 강의하는 과목을 ‘原典’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³³⁾. 이상의 이유로 ‘原典’이 아니라 ‘黃帝內經’으로 변경하여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一般漢文(論語, 孟子, 小學 등 동양 古典)’

‘一般漢文’은 예과 2 년의 과정이 없어 漢文 교육에 필요한 절대 시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를 입시 과정에서 국가공인한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11 개의 교육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교육 기관에서 교육하고 있으므로 ‘原典(黃帝內經)’과 ‘醫學漢文’과

31) (財)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 서울. 유천문화사. 2007. p.9.

32)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難經을 교육하는 기관은 4 군데인데, 이들 교육 기관 모두 ‘難經’이라는 별도의 교과목을 두어 難經을 교육하고 있다.

33) (財)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 서울. 유천문화사. 2007. p.9.

마찬가지로 原典學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一般漢文’은 『論語』, 『孟子』, 『小學』 등 동양의 주요 古典의 原文 강독을 통해 漢文 실력 배양과 동양철학 습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한의학전공자들로 구성된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예를 들면 漢文學科 전공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漢文 실력 배양과 동양철학 습득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韓醫學漢文과는 달리 ‘一般漢文’의 대상 古典이 漢文學科에서 다루는 古典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나름 일리도 있다. 따라서 ‘一般漢文’을 原典學 교실의 고유 담당 교과목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는 비록 사실상 모든 한의학 교육 기관에서 ‘一般漢文’을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각 대학 사정이나 논의의 결과에 따라 ‘一般漢文’ 교육의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비록 漢文學科와 대상 古典이 같기는 하지만 한의학과는 특징에 맞춰 강의해야 하기 때문 이라거나 혹은 어느 쪽이 담당하나 학생 교육에 큰 차이는 없지만 原典學 교실의 역할 확대와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一般漢文’ 강의를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논리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교과목명을 달리 정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一般漢文’, ‘漢文’, ‘孟子’, ‘論語’, ‘四書三經’ 등의 명칭은 다른 계열의 교양 漢文이나 漢文學科의 교과목과 차이가 없어 보여 굳이 한의학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한의학 초급 漢文’이라는 식으로 한의학에 특화된 漢文 교육이란 의미가 드러나는 교과목명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비록 ‘一般漢文’이나 구체적 古典의 이름인 ‘孟子’나 ‘論語’ 등을 사용한 경우와 달리 교과목명이 교육 내용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선 부득이한 일이라 생각된다.

③ ‘難經’

‘難經’은 4 개의 한의학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難經』이 原典學 교육 분야에 포함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선 각 학교의 原典學 교실마다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6년 개정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의 原典 과목의 학습목적에 『黃帝內經』과 함께 한의학의 최고 원리서 두 권중 하나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難經』이 그만큼 중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難經』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있거나 혹은 『難經』 교육의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④ ‘運氣學’

‘運氣學’은 3 개의 한의학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原典學 교실에서 ‘運氣學’ 과목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運氣學’이 과연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해야 할 과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黃帝內經 素問』의 運氣七篇을 原文으로 강의한다면 명백히 原典學 교실 담당 과목이라 할 수 있지만 原文이 아니라 運氣學의 역사와 체계와 내용을 풀어서 강의한다면 일반적으로 ‘韓醫學概論’ 과목을 담당하는 생리학 교실을 강의 주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할 교과의 교과목의 기본 요건은 ‘그 주요 교재가 漢文으로 된 原文’이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전제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運氣學’ 과목의 경우는 강의 방식이 原文 해석 중심이라면 原典學 교실의 담당 과목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될 경우에는 다른 교실 담당 과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⑤ ‘東醫寶鑑’, ‘傷寒論’, ‘溫病學’, ‘醫哲學’, ‘醫易學’, ‘의료정보학’

‘東醫寶鑑’, ‘傷寒論’, ‘溫病學’, ‘醫哲學’, ‘醫易學’, ‘의료정보학’ 과목은 2 개의 한의학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東醫寶鑑’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東醫寶鑑』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한의학의 대표적 原典이다. 그런데 이를 강의하는 학교 자체가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하는 곳은 2 군데 뿐이다. 이는 『東醫寶鑑』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東醫寶鑑』을 原典으로 보지 않아서라기보다는 『東醫寶鑑』을 임상활용서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실제로 『東醫寶鑑』의 많은 양이 소위 임상 교수들이 강의하는 임상 과목의 교과서에 주체별로 발췌되어 인용되어 있다. 그래서 『東醫寶鑑』의 교육은 임상 과목 교육 중에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따로 『東醫寶鑑』 과목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가 “『東醫寶鑑』을 강의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동료 임상 교수가 “原典學 교실에서 기초부터 임상까지 모두 다 하겠다는 의미냐?”라며 비판했던 것도 『東醫寶鑑』을 임상활용서로만 보고 기초에서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東醫寶鑑』이 임상활용서인 것은 맞다. 그러나 原典의 범위가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에 수록된 것처럼 『黃帝內經』과 『難經』에만 국한되는 것이³⁴⁾ 아니라면, 『東醫寶鑑』 역시 ‘한의학의 이론체계를 확립하고 한의학 관련 漢文 독해 능력 배양을 위한 原典 교육’의 대상 서적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실용적 임상활용서의 성격이 강한 『東醫寶鑑』 강의를 통해 임상 교육을 原典學 교실에서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東醫寶鑑』을 포함한 모든 原典은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게 原典을 읽는 시각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東醫寶鑑』 전체를 다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東醫寶鑑』의 편제와 구성 방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東醫寶鑑』 原文을 쉽고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은 있어야 하고 이 역할을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중요한 과목으로 ‘東醫壽世保元 講讀’ 과목을 들 수 있다. 四象醫學의 原典인 『東醫壽世保元』은 12 개 교육 기관에서 모두 교육하고 있는데, 모두 한방 병원의 임상 교실인 사상체질의학교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역시 四象醫學은 임상의학이므로 『東醫壽世保元』은 임상 교실에서 강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물론 『東醫壽世保元』은 임상서이다. 하지만 『性命論』 『四端論』 등 기초 원리에 대한 내용도 적지 않을뿐더러 『東醫壽世保元』 자체가 매우 독특한 책이다. 따라서 그 독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東醫壽世保元』 原文을 쉽고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게끔 교육하는 역할을 原典學 교실에서 일부 할 필요가 있다. 교원수나 강의시수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배제하고 이상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原典學 교실에서 『東醫壽世保元』의 일차 교육을 통해 『東醫壽世保元』 原文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 후 사상체질의학 교실에서 임상 적용 및 활용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06년 개정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臨床醫學篇』에서 “한의학의 正氣 중심의 기본이 되는 四象醫學을 통해 인간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체질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고 양생을 지도한다.”³⁵⁾라고 제시함으로써 ‘四象醫學’의 학습 목적을 四象醫學의 임상 활용에 초점을 두었음을 참고할 때, 原典學 교실에서 일차로 『東醫壽世保元』 原文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더 커진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原典學 교실 담당 교과목의 교육 목적은 『傷寒論』이나 『東醫寶鑑』이나 『東醫壽世保元』 등 그 과목에서 다루는 특정 醫書를 이해하는 시각과 능력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한의학 原典을 이해하는 시각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음을 밝혀둔다.

다음으로 ‘傷寒論’ 과목에 대해 살펴보면, 『傷寒論』은 한의학 전공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손꼽히는 중요한 原典이고 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의 ‘傷寒論’ 과목의 학습목적에도 “한의학 古典인 仲景 『傷寒論』”³⁶⁾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2 개의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건 분명 크게 잘못되어 보인다³⁷⁾.

35) (財)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臨床醫學篇. 서울. 유천문화사. 2007. p.453.

36) (財)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 서울. 유천문화사. 2007. p.97.

37)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여타 과목과 달리 『傷寒論』은 한의사

34) (財)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 서울. 유천문화사. 2007. p.9.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여타 과목과 달리 ‘傷寒論’은 한의사 국가고시에 포함되는 과목이다. 따라서 ‘傷寒論’ 과목 자체는 12 개의 교육기관 모두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 2 곳의 原典學 교실에서만 ‘傷寒論’ 강의를 한다는 건 나머지 10 곳의 교육기관에서는 原典學 교실이 아닌 다른 기초 교실에서 ‘傷寒論’ 강의를 담당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傷寒論’ 교육은 『傷寒論』의 原文 해석과 암기와 이해가 주요 방식이므로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해야 할 교과목이 분명한데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傷寒論’ 강의를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랜 기간 ‘傷寒論’ 강의를 다른 교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교재편찬이나 시수재배정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갑자기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대한한의학회전학회 차원의 접근을 통해 우선 현재 ‘傷寒論’ 강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10 개 교육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傷寒論’ 강의의 일부라도 맡는 방식에서 시작해서 차츰 범위를 늘려서 결국은 과목 전체를 이양 받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수 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양 받아야 늘어난 강의 및 연구 부담에 맞춰 原典學 교실 전임 교원을 충원하는 문제와 ‘傷寒論’ 국가고시에 참여하는 문제에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傷寒論’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임상 분야에 예를 들자면 ‘傷寒科’ 같은 교실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이다. 만약 앞으로 ‘傷寒論’을 임상 과목으로 판단하고 그와 같은 교실을 만든다면, 原典學 교실에서는 앞서 살펴본 『東醫寶鑑』 교육과 마찬가지로 『傷寒論』의 특징과 原文 이해 능력을 교육하는 일차 역할만을 맡고 임상 활용 등의 응용 교육은 임상 교실에서 맡아야 할 것이다.

국가고시에 포함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傷寒論’ 과목 자체는 12 개의 교육기관 모두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 2 곳의 原典學 교실에서만 ‘傷寒論’ 강의를 한다는 건 나머지 10 곳의 교육기관에서는 原典學 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에서 ‘傷寒論’ 강의를 담당한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溫病學’과 ‘醫哲學’ 과목에 대해 살펴보면, ‘溫病學’은 『溫病條辨』 등의 原典 강독을 주요 강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原典學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 교재가 原典이 아닌 ‘醫哲學’ 과목은 原典學 분야라기보다는 한의학교육 기관 내에 예를 들어 醫哲學 교실과 같이 그 과목을 담당할 딱 들어맞는 교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담당하거나 혹은 개별 교수의 학문적 취향 때문에 담당하는 걸로 추측된다. 따라서 ‘醫哲學’ 과목은 原典學 고유의 교육 분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醫易學’ 과목도 마찬가지다. 이 과목도 일종의 동양철학 관련 과목이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醫哲學’ 과목과 마찬가지로 原典學 고유의 교육 분야라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醫易學’은 그 학문적 특성상 原文을 많이 다루게 되므로 ‘醫哲學’ 과목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형적인 原典學 교육 분야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의 교육 기관 실정에서는 ‘醫哲學’ 과목과 ‘醫易學’ 과목 모두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앞으로도 ‘醫哲學 교실’과 같은 교실이 따로 생기지 않는다면, 原典學 교실의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통해 ‘醫哲學’ 과목과 ‘醫易學’ 과목 모두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하는 고유의 과목이라는 공감을 얻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의료정보학’ 과목을 보면, 얼핏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해야 할 교과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료정보학’의 내용이 原典의 原文을 특정 주제나 목적에 맞게 발췌, 편집, 재가공하는 것이라면, 비록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분야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原典學 교육 분야에 포함시켜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原文을 다룬다는 점에서 현 체제 내에서는 原典學 교실에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IT 기술을 이용한 原典에 대한 새로운 현대적 접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별도로 의료정보학 교실이 생긴다면 당연히 原典學 분야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목 명칭은 ‘한의학정보학’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⑥ ‘金匱要略’, ‘類經’, ‘醫書講讀(醫學心悟)’, ‘韓醫學用語’, ‘韓醫學概論’

‘金匱要略’, ‘類經’, ‘醫書講讀(醫學心悟)’, ‘韓醫學用語’, ‘韓醫學概論’ 과목은 1 개의 한의학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金匱要略’, ‘類經’, ‘醫書講讀(醫學心悟)’을 살펴보면 原典의 原文을 교육하는 전형적인 原典學 교육 분야의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강의하지 않는 이유는 강의시수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原典學 교실의 다른 담당 교과목에 비해 중요도에서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金匱要略’, ‘類經’, ‘醫書講讀(醫學心悟)’이 原典學 교육 분야의 교과목임은 분명하다. 다만 ‘醫書講讀’은 과목 명칭을 ‘醫學心悟’로 정하고, 만약 대상 原典이 바뀐다면 또 그 바뀐 原典名으로 과목명을 정하는 것이 교육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韓醫學用語’ 과목을 보면, 얼핏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해야 할 교과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原典의 原文을 대상으로 韓醫學用語를 추출하고, 각 용어의 의미를 原典 내에서의 맥락을 고려해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혹은 韓醫學用語 사전을 만들고 이를 강의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韓醫學用語’ 과목을 原典學 교육 분야로 간주함에 있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韓醫學概論’ 과목을 살펴보면, ‘韓醫學概論’ 과목은 비록 1 개 교육 기관의 原典學 교실에서 교육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原典學 교육 분야로 보기는 어렵다. 韓醫學入門用으로 사용 가능한 原典을 교재로 삼아 韓醫學概論 과목을 교육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韓醫學概論은 그런 방식으로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原典學 교육 분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Ⅲ. 結 論

교육 분야에서의 原典學的 범위 및 학습 목적 연구를 위해 현재 11 개 한의과대학 및 1 개 한의학전문

대학원의 原典學 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주로 그 과목의 내용과 그 과목을 교육하는 교육 기관의 수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原典學 교실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의 종류는 모두 16 개인데, 이 중 ‘原典(黃帝內經)’, ‘醫學漢文’, ‘難經’, ‘傷寒論’, ‘東醫寶鑑’, ‘溫病學’, ‘金匱要略’, ‘類經’, ‘醫書講讀(醫學心悟)’, ‘의료정보학’, ‘韓醫學用語’의 14 개의 교과목을 原典學 고유의 교육 분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黃帝內經』과 『難經』만을 原典學的 교육 범위로 한정된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의 原典學的 학습 목적은 보다 포괄적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2. 해당 교과목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드러낼 뿐 아니라 한의학 교육 기관에서의 原典學 교육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현재 ‘原典’인 과목은 ‘黃帝內經’으로, ‘醫學漢文’인 과목은 ‘韓醫學漢文’으로, ‘의료정보학’은 ‘한의정보학’으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다.
3. 4 개의 교육기관에서만 ‘難經’ 과목 강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難經』의 위상에 대한 논의나 『難經』 교육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 특정 과목에서 다루는 특정 醫書를 이해하는 시각과 능력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한의학 原典을 이해하는 시각과 능력을 키우는 것을 原典學 교육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原典學 교실에서 ‘傷寒論’과 ‘東醫寶鑑’ 등의 原文 講讀 과목을 일차로 담당하여 해당 原典의 原文 이해 능력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5. ‘의료정보학’과 ‘韓醫學用語’ 과목은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原典學 교육 분야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原典學 교육 분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김도훈. 韓國의 原典學 研究 動向.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4). p.102.
2. 금경수, 송지청, 엄동명. 韓國의 原典學 研究 動向.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2). p.101.

<단행본>

1. (財)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基礎醫學篇. 서울. 유천문화사. 2007. p.9, 97.
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編著. 東洋醫學大辭典 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92.
3.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2009년-2010년). 2011년. pp.8-9, 28-29, 56-57, 80-81, 104-105, 126-127, 151-153, 174-175, 195-197, 220-221, 242-243, 264-265.
4. (財)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韓醫科大學 學習目標 臨床醫學篇. 서울. 유천문화사. 2007. p.453.